

신명기

메시지 11

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생활의 방면들

성경: 신 1:9-18, 15:10, 22:9, 25:13-16, 고전 10:6, 11

I.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교회의 예표이다 — 고전 10:6, 11.

A.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적인 안배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 하였고, 그들을 교회의 예표인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— 롬 9:11-13, 행 7:38.

1. 구약에서 교회는 분명한 말로 언급되지 않지만 교회를 묘사하는 예표들이 있다 — 창 2:21-24, 대상 28:11-19.

2.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은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집합적인 예표이다. 이 예표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것, 생명 공급으로서 그리스도와 그 영을 누리는 것,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것, 그리스도를 자신의 뒤편으로 물려받는 것, 하락하고 사로잡혀 가는 것, 회복되는 것,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등을 본다.

3.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신약의 교회생활에 적용한다 — 고전 5:7-8, 10:1-13.

a.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일이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— 고전 10:6.

b.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역사는 교회의 이야기이다.

B. 성경은 두 가지 역사, 곧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포함한다 — 행 7:1-53, 계 2-3장.

1.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예표이고, 교회의 역사는 이 예표의 성취이다.

2. 구약에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 곧 그림이 있고, 신약에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다 — 딤후 1:4, 엡 1:10, 3:9-11.

II.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통치를 갖고 계시며, 교회 안에도 통치가 있다 — 계 4:2, 5:6, 행 14:23, 딤후 1:5.

A.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주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집행하기를 갈망하신다 — 엡 1:10, 22-23.

B.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이 가득한 상황이 있었다.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의 동역과 건축은 하나님의 행정과 통치 아래 있었다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11 (계속)

- C.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의 신성한 통치 제도는 신정(神政)이다 — 계 4:2, 5:6.
1. 신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통치하시는 것이다 — 시 89:14.
 2.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행정은 신정이었는데, 이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오셔서 어떤 대리인들을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관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 대리인들은 하나님의 신정을 위해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 — 신 1:9-18.
 3.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의 신정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하심과, 우림과 둠뭇이라는 수단에 의해 대제사장의 가슴받이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하심에 따른 통치였다 — 출 28:30, 레 8:8, 민 27:21, 신 33:8.
- D. 교회의 행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제도는 전제(專制) 정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. 전제 정치는 일종의 독재 정치이고, 민주주의는 사람들에 의한, 사람들의 의견에 따른 통치 제도이다 — 행 14:23, 딤후 1:5.
1.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. 교회 안에서의 통치 제도는 신정이다 — 엡 1:10, 22-23, 골 2:19.
 2. 오늘날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밖에 있는 성경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근거한다 — 딤후 3:16-17, 롬 8:5, 14.
 3. 장로들이 문제들을 토론하는 일에서 성령을 따를 때, 전제 정치나 민주주의가 없을 것이고, 신정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.
- E.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합당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받고 통제받는 사람이었다 — 신 17:14-20.
1. 이 원칙은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— 행 13:1-4상.
 2. 장로들은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— 골 3:16.
 - a.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,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이다.
 - b.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장로들의 결정과 함께하실 것이며, 장로들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교회의 사무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. 이런 종류의 관리가 신정이다.

III.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생활의 방면들을 묘사해 준다 — 신 1:1.

신명기

메시지 11 (계속)

- A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실 때,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경배의 중심지인 유일한 장소, 곧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경배하기를 요구하셨다. 그들은 자신의 관념에 따라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— 신 12:1-12.
1.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장소만이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경배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— 신 12:5.
 2. 하나님의 백성은 단체적인 경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인 시온 산으로 가야 했다.
 3.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하나를 지키시기 위해 경배의 유일한 장소를 선택하셨다 — 시 133:1.
- B.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의 일부인 모든 이들의 필요를 돌보신다 — 신 12:19, 14:27-29.
1. 신약의 용어에 따르면,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돌보시는 것을 의미한다 — 고전 12:14-27, 빌 4:14-20.
 2.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, 그분의 몸을 사랑하며, 모든 지체들의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— 고후 8:1-15.
- C.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자 한다면,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일과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— 신 15:10.
1.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때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알고 기뻐해야 한다 — 고후 9:1-12.
 2. 마몬을 처리하고 물질적인 소유를 드리는 것은 부활 안에서, 교회들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된다 — 고전 16:1-3.
 - a. 매주 첫날에 재물을 드린다는 사실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— 고전 16:1-2, 마 6:1-4.
 - b. 우리가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을 안다면, 우리는 돈과 물질적인 소유를 이길 것이고, 우리가 소유한 것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— 고전 16:1-2, 행 2:44-45, 4:32-35, 롬 15:26.
- D.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서로 다른 저울추와 되에 관한 규례이다.
1. 서로 다른 저울추와 되를 가지고 있는 부정직한 실행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, 분명히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— 요 8:44.
 2. 영적인 적용에서 볼 때,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은 유죄 판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저울추와 되, 즉 서로 다른 저울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저울을 사용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저울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11 (계속)

3. 하나님의 집인 교회(딤후 3:15)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재는 데 오직 하나의 저울이 사용되어야 한다.
 4.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저울만 있다면,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공평하고 의롭고 공정하게 될 것이며, 교회 안에서 하나와 한마음 한뜻을 지키게 될 것이다 — 마 7:1-5.
- E. 한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 — 신 22:9, 딤후 1:3-4, 6:3, 비고 눅 8:11.
1.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며, 이 포도원에 우리는 한 종류의 씨 곧 한 종류의 가르침만 뿌려야 한다 — 고전 3:9하, 행 2:42.
 2. 만일 우리가 다르게 가르쳐서 한 종류보다 많은 종류의 씨를 뿌린다면, 교회의 그 ‘소산’은 몰수당할 것이다.
 3. 사도들은 모든 장소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쳤다 — 고전 4:17, 7:17, 11:16, 14:33하-34.
 - a. 우리 또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동일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— 마 28:19-20.
 - b. 신약에는 어떤 가르침이 한 교회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교회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상이 없다. 반대로 신약은 모든 교회들이 가르침들을 받는 것에서 동일했다는 것을 제시한다 — 딤후 1:9.
- F.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 — 엡 1:22-23, 4:15, 골 2:19, 갈 2:16, 3:2, 5-9, 14.
1.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— 히 10:39-11:1, 6, 9-12, 12:2, 벰전 1:7-8.
 2.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으며,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— 딤후 1:4, 갈 2:20, 고후 5:7, 4:13.
 3. 교회는 ‘믿음의 가족’이다 — 갈 6:10.
 - a. 믿음의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모든 이들로 구성된다 — 갈 3:26.
 - b.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함께 우주적인 한 가족, 하나님의 위대한 가정, 곧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구성한다 — 갈 6:10, 히 11:6.